

중진출기업 생산 현장을 가다
기아자동차 연청공장 (하)

“주력제품 ‘리오’로 中 시장 제패”

동풍위에다치차(東風悅達汽車)유한공사 인구 70만인, 다소 한적한 농도에 자리잡게 된 것은 연청(鹽城)시의 전폭적인 지원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의 발원지인 연청시의 경우 10여년 전만 해도 ‘소금이 산더미처럼 쌓인’ 해변마을에 불과했다. 기아차의 전신인 아세아자동차가 이곳에 연고를 갖고 자동차를 생산하다가 지난 2000년 기아 50%, 동풍 25%, 위에다 25% 합작을 통해 현재의 기반을 구축했다.

연청시는 공장부지 30년 장기임대는 물론 공장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무료 지원한데 이어 한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부품수입을 원활케하기 위해 인근에 대풍항을 새로 건설해주는

10월 완공 2공장 생산성 높여 ‘상해 GM’ 따라잡기
제품 우수성 홍보 등 대리점 대상 영업 교육 돌입

열성을 보였다.

공장이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뒤 프라이드가 서서히 바랍을 일으키더니 2002년에는 엑센트를 수출용으로 개조한 천리마가 뒤를 이었다. 2004년 위에다치차 생산량의 80%에 육박하는 5만5천781대를 판매, ‘천리마 신화’를 일궈냈다. 중국내에 불린 전 세계 50개 자동차메이커를 꺾고 놀라게 하는 일대 사건이었다.

김영만 위에다치차 부총경리는 “그해 상해폭스바겐이 중국에서 35

만대를 팔았는데, 출범 4년만인 천리마가 5만대를 넘겼으니 말 그대로 난리가 났다”면서 “제품의 우수성과 함께 대리점을 대상으로 끈질긴 마케팅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중국 시장은 그 리 녹록치 않다. 상해GM의 라세티가 현재 상종가를 때리고 있는가 하면, 중국 로컬업체들이 대당 가격이 150만~200만원 값싼 ‘짜퉁’으로 시장질서를 온통 흔들어놓고 있기 때문이

국내 생산라인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위에다치차의 생산성도 속제다. 위에다치차는 시간당 생산대수가 28대로 광주의 스포티지 라인 35대, 뉴카렌스 라인 37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해 김 부총경리는 “노동단력성이 워낙 좋아 굳이 자동화설비를 위해 추가비용을 투입할 필요가 없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공장신축과정에서 연청시로부터 무한지원을 받은 상황에서 현재 3천여명에 달하는 지역 인력에 ‘메스’를 가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위에다치차는 1공장에 이어 오는 10월 준공할 연산 30만대의 2공장을 최첨단



장쑤성(江蘇省) 연청시(鹽城市) 동풍위에다치차유한공사 중국 근로자들이 수동작업을 통해 자동차를 생산해내고 있다. /중국 연청=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표준공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수동작업을 최소화하는 대신 엔진과 차체공장에 220대의 로봇을 투입, 1공장과의 함께 리오를 비롯해 프라이드·천리마·카니발·옵티마·세라토 등 6개 주요 제품 43만대를 생산, 중국시장 제패에 나설 방침이다. 또 위에다치차는 올해부터 181개

에 달하는 대리점의 영업실적을 꼼꼼히 점검해 역량이 떨어지는 대리점은 과감히 퇴출시키는 한편 주력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영업베터랑 4명을 긴급 투입해 대리점 교육에 돌입하기로 했다. 김 부총경리는 “중국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0.3%에서 올해 9.4%가

예상되고 정부정책에 의해 소비위축이 지속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문화 및 스포츠 마케팅과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풀가동해 판매비중을 지난해 2.7%에서 4%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 연청=이종태기자 jilee@

“광주·전남 을 한 파업 막자”

지역경제 유관기관 협의회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 2일 3층 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현안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경제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광주시청, 광주·전남지방통계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광주·전남 경총 등 실무책임자 10여명이 참석해 지역내 고용, 노사문제, 반기업

정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파업은 해마다 줄고 있으나, 파업손실일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이는 대형사업장의 고질적인 파업에 따른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자체를 비롯한 각 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참석자들은 우호적 노사관계 형성, 반기업정서 해소 등을 위해 지자체와 유관기관 중심의 ‘(가칭)산업평화포럼’ 구성을 검토기로 합의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중소육성·지원 설명해 드립니다

6일 광주·8일 전남서부권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장순호)은 지역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들이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및 지원제도를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중소기업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007년 중소기업 육성정책 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 일정은 ▲광주권=6일

오후 2시 광주상공회의소(062-350-5864) ▲전남 서부권=8일 오후 2시 목포벤처지원센터(061-270-8820) ▲전남 동부권=13일 오후 2시 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061-750-3086) 등.

설명회에는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을 비롯해 산업자원부,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참여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車 긴급출동 보험료 최고 57.4% 인상

11일부터... 장기 무사고 운전자 부담 가중

손해보험사들이 이달 중순부터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5~7% 인상하면서 자동차 사고나 고장 때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기 위해 내야 하는 특약보험료도 함께 대폭 인상하고 있다.

특히 연식이 오래된 차량일수록 인상이 크기 때문에 최대 할인을 도달기간 연장 등으로 보험료가 20% 안팎으로 치솟은 장기무사고 운전자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제일화재는 오는 11일부터 긴급출동서비스 특약보험료를 자동차 연식에 따라 4~6년된 차량은 1만9천원에

서 2만1천300~2만9천900원으로 최고 1만900원(57.4%)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7년 이상된 차량은 2만1천300원에서 2만3천700~2만9천600원으로 최고 8천300원(39.0%) 오른다.

메리츠화재는 차량연식에 상관없이 1만8천900원(2천cc 기준)이었던 긴급출동 보험료를 연식에 따라 3단계로 나눴다.

5년 이상된 차량은 2만5천700원으로 6천800원(36.0%), 2~4년된 차량은 2만800원으로 1천900원(10.1%)씩 각각 보험료가 인상되고 신차와 1

년 이내 차량은 1만2천600원으로 6천300원(-33.3%)이 낮아지게 된다.

그린화재도 4~6년된 차량의 긴급출동 보험료를 2만2천200원으로 1천200원(5.7%), 7년 이상 차량은 2만5천600원으로 1천400원(5.8%) 인상한다.

상생화재는 작년 12월 기준 1만3천200~2만5천900원이던 보험료 적용 범위를 연식·차종별로 세분화해 1만~2만8천600원으로 변경했고, 현대대상도 지난해부터 보험료 산정기준을 2단계에서 7단계로 나눠 적용하고 있다.

교원나라자동차보험도 작년 12월 긴급출동 기본보험료를 평균 10.3% 인상했다. /연협뉴스

아시아나, 화물 추적 서비스 개시

아시아나항공은 화물추적정보를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SMS서비스를 2월부터 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주로 유

화물추적 SMS 서비스는 예약·출발·도착·환승·인도 등 다섯 단계의 추적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휴대폰만 지니고 있으면 위탁화물의 출·도착 및 인도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친환경 설 차례상 비용 18만원

일반 농산물보다 57%비싸

친환경 농산물을 차리는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은 18만 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에 따르면 저농약 배, 무농약 숙주, 유기농 계란, 우리밀, 우리쌀 등으로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은 18만3천230원으로 일반 농산물 차례상(11만6천520원)보다 57.3%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곱질참 먹는 안심사과(5개)는 일반 사과보다 29.

4%, 저농약 배(5개)는 일반 배보다 10.2%, 귤(5개)은 13.3% 비싸다.

유기농 계란(10개)가격은 일반 계란보다 192.7%, 무농약 숙주(500g) 가격은 일반 숙주보다 77.9% 더 높다. 우리밀로 만든 약과(10개)는 일반 약과에 비해 234.1%, 무농약 참살로 만든 산자(150g)는 84.5% 비싸다.

생선은 종류에 따라 백조기와 참조기가 288.9% 가격차이가 나고, 밤도 품종에 따라 50.8% 차이가 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설 비축수산물 20~30% 할인 판매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장장 김대춘)이 설을 앞두고 정부비축 수산물을 조기 방출한다.

방출량은 냉동수산물 4천283t에 달한다. 주요 품목은 갈치 280t, 오징어 1천t, 고등어 800t, 명태 2천t, 삼치

200t 등으로 5일부터 16일까지 공판장 경매를 통해 판매된다.

김대춘 장장은 “이 기간동안 중도매입협회의 공동으로 영광굴비 등 지역특산품과 제수용 선어세트 등을 시중가보다 20~30% 할인판매해 소비자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

Advertisement for '세탁년 세학기' (Laundry Year Seasonal) featuring '익사SET' (Ik-sa SET) and '특별인' (Special Offer). It displays various laundry equipment like washing machines and dryers, along with promotional text and images of a woman and a child.

Advertisement for 'Sens-Mo' (센스모) featuring a man in a suit and glasses. The text promotes '맞춤가발' (Custom Hairpiece) and '전문가' (Expert).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Sens-Mo and mentions '신안대학교' (Shin-an University).